



‘사상 첫 4강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2019 FIFA U-17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당당했다. 새 시대를 열어가길 미래의 자원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에서 열린 멕시코와 대회 8강에서 0-1로 패한 어린 태극전사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도전은 멈췄지만, 한국축구 이끌 보물 발견

호주·日 16강 탈락속 靑자존심 지커 신승훈·최민서·정상빈·오재혁 등 다양한 포지션의 새 얼굴 발굴 수확 김정수 감독 “계속 성장하라” 응원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꿨던 17세 이하(U-17) 태극전사들의 여정이 모두 막을 내렸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 축구연맹(FIFA) U-17월드컵' 멕시코와 8강전에서 0-1로 패했다. 대회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대업 역시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

●후반 동한의 결승골 허용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정상을 밟은 멕시코는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몰아붙이며 한국을 압박했다. 전반 5분 산티아고 무뇨스의 슛이 골문을 살짝 빗겨나가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연출했다. 그러나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14분 공격수 최민서가 왼발슛으로 멕시코 골대를 강타했고, 7분 뒤에도 강력한 슛으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후반 역시 팽팽하게 진행됐다. 양쪽 모두 교체선수들을 투입하며 선제골을 쏘았다. 효과를 본 쪽은 멕시코였다. 후반 32분, 호세 루이스가 문전에서 올려준 볼을 교체선수 알리 아빌라가 머리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0-1로 밀린 한국은 총공격을 펴부었다. 추가시간 4분이 흘렀지만 시점에서 얻은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신승훈(금호고)까지 앞으로 투입했지만 끝내 동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휘슬이 울린 뒤 U-17 태극전사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달랠다. ●U-17 셋발 발견한 한국축구 비록 김정수호의 도전은 끝났지만 박수를 받기에는 충분한 여정이었다. 1987년 캐나다 대회와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 이후 세 번째 8강행을 이뤄낸 김정수호는 이번 대회에서 호주와 일본이 16강에서 탈락할 때 유일하게 8강 무대까지 살아남으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차 한국축구를 이끌 U-17 태극전사들을 발견했다는 수확도 있었다. 주장 겸 수문장을 맡은 신승훈을 비롯해 공격수

최민서(포항제철고), 미드필더 정상빈(매탄고)과 오재혁(포항제철고), 수비수 이태석(오산고)까지 다양한 재목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진가를 드러냈다. 한국축구는 올해 연령별 월드컵에서 잇따라 호성적을 작성하는 쾌거를 맞이했다. 이강인을 필두로 한 U-20 태극전사들은 6월 월드컵에서 역사상 최초의 결승행을 합작했고, 이들보다 한 계단 어린 U-17 태극전사들 역시 이번 대회에서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김정수 감독은 경기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8강행은 모두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도 쉽게 물려서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고훈준 기자 shuul@donga.com

내가 왜 떴게?

예비역만이 달 수 있는 댓글



태양

●태양, 고경표 댓글 :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빅뱅의 태양. 군복을 입고 전역하는 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멋지다(주워)”, “드디어 전역한 거 나(위너 강승윤)” 등 동료, 선후배, 팬들의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태양과 육군 호국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한 배우 고경표의 “축하축하, 곧 따라갑니다”라는 축하 댓글에 태양은 “경표야, 그날이 올까”라는 짓궂은 댓글을 달아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했다. 고경표는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이다. 걱정 마세요. 그날은 옵니다. 태양이 서쪽에 떠도 오긴 올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듯



아이비

●아이비, 냉동난자 : 20대 시절 섹시 아이콘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이비. 30대 후반이 되었어도 여전히 섹시한 외모를 간직하고 있는 아이비지만 요즘은 털털한 입담으로도 인기. 방송에 출연한 아이비는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아이를 너무 좋아해 고민이 있다. 난자를 얼렸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절대 안 늦은 것 같습니다. 전기세 아낄 수 있어요.

다음 선물은 뭘까요?



현아

●현아, 역조공 : 좋아하는 스타에게 팬들이 선물을 하면 ‘조공’, 반대로 스타가 팬들에게 선물하면 ‘역조공’. 가수 현아의 톱콘 역조공이 화제다. 자신이 출연하는 음악방송을 보러 온 팬들에게 고급 화장품 세트, 티셔츠, CD 등이 담긴 선물을 한 아름 안긴 현아는 며칠 뒤 또 다른 자리에서 커피 상품권을 팬들에게 나누어줬다. 멋져요, 현아님! 혹시 저도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팬이 되어버렸어요!

아이즈원, ‘홍백가합전’ 출연도 취소?

‘프듀’ 투표조작, 日 한류에도 치명타

日 멤버 3명 포함된 한·일 합작 그룹 활동 불투명...NHK, 출연 강행 부담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의 문자 투표 조작 파장이 일본 한류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프로그램이 배출한 한일 합작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현지 활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즈원은 일본 연말 최대 가요제인 NHK ‘홍백가합전’의 출연자 물망에 올랐다.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출연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NHK는 하락 추세인 시청률을 다시

올리고 젊은 시청자들도 끌어들이 목적으로 아이즈원 출연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트와이스를 이을 차세대 걸그룹으로 주목할 만큼 이들의 활약상에 기대를 걸었다. 아이즈원은 현지에서 ‘홍백가합전’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아시아TV ‘뮤직스테이션’의 ‘단골’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NHK 교육채널의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홍백가합전’ 출연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듀스 48’ 제작진의 투표 결과 조작에 따라 NHK의 이런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2명으로 구성된 아이즈원의 멤버 가운데에는 미야와키 시쿠라, 아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 3명의 일본인이 속해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제작진의 부정으로 자국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프로듀스 48’은 일본 최대 걸그룹 AKB48에서 제목



엠넷 ‘프로듀스 48’ 제작진의 투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이 프로그램 출신 아이즈원의 일본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진제공 | 오프더레코드

을 따르고 일부 관계자가 제작에 참여한 바 있어 향후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재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일본 버전인 ‘프로듀스 101 재팬’이 현지 지상파 채널인 TBS가 9월부터 방송 중이다. ‘프로듀스 101’의 제작사 CJ ENM은 2017년 방송 이후 올해 여름 포맷을 판매하고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X101’ 제작진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뒤 포맷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11일 “포맷 수출에 따른 가이드 형식의 제작 지원”이라며 “국내 버전과는 투표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MLB닷컴 “류현진 FA 전체 5순위·선발 3순위”

FA 자격선수 대상 ‘가상 드래프트’

2020시즌 프리에이전트(FA)를 대상으로 한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가상 드래프트에서 류현진(32·LA 다저스)이 전체 5순위로 뽑혔다.

MLB닷컴은 11일(한국시간) 2019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상 드래프트를 진행해 25인 로스터를 구성한 결과를 공개했다. MLB닷컴의 기자 윌



류현진

리치와 마이크 페트리로가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가상 드래프트에서 투수는 선발 5명과 계투 7명 등 총 12명이 지명됐다.

리치 기자는 전체 5순위로 류현진을 지명했다. 선발 투수로는 게릿 콜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 이어 세 번째였다. 류현진에 앞서 페트리로가 기자가 1순

위로 콜을, 리치 기자가 2순위로 내야수 앤서니 렌던을 선택했다. 3, 4순위로 스트라스버그와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이 지명됐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서 182.2이닝을 던지며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MLB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하며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을 선택한 리치 기자는 “류현진은 확실히 부상에 대한 위험이 있고, 1년 이상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다”면서도 “이것은 1시즌만 생각한 드래프트다. 류현진은 2020시즌에도 2.50 이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할 수 있는

투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야구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같은 날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2020시즌 성적을 예측했다. 팬그래프닷컴은 류현진이 2020시즌 29경기에 선발등판해 171이닝을 소화하며 11승9패, 평균자책점 4.05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9이닝당 볼넷 2.13개, 홈런 1.29개를 허용할 것이라는 세부 기록도 전망했다. MLB닷컴 가상드래프트 1위를 차지한 콜에 대해선 32경기에서 195이닝을 소화하며 15승8패, 평균자책점 3.00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